

도전하는 동료들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 2018년도 사회책임 이행 내역
- 구성원의 다양성
- 소수자 차별금지
- 채용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 탄소배출 감소 및 재활용품 사용

01

2018년도 사회책임 이행 내역

법과 윤리

01 로펌 내 이의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지평 윤리헌장 존재(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 존재

이해충돌회피를 위한 노력 시행 등

02 위법행위 발견 시 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존재
(윤리헌장 13조 :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절차)

03 공정한 전문가 활용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입제한 의무 준수

비변호사 고문의 숫자가 매우 소수(6명) / 자문·전문위원 제외

차별금지 인적 다양성

01 구성원의 다양성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전체변호사 중 35.8%)

본사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로, 의무고용률 준수
(지방·해외 사무소를 포함할 경우 2.4%로 의무고용률에 미달)

시각장애인 미국변호사 채용(2015. 9. 1.)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근무

탈북민 근무

경력단절여성 채용

'예비구성원회의(예비구성원변호사 모임)'가 제안한
업무혁신위원회를 수립하고, '소울(직원 모임)'을 통하여
경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02 소수자 차별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존재
(소수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활동을
주요 공익활동으로 설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사용

03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

성별,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음

인터뷰 선발 시 부모 등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사진 부착란 없음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에 따른 개선 노력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0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호사 : 출산휴가 1건, 육아휴직 1건, 혼합사용 2건

직원 : 혼합사용 8건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5건, 육아휴직 1건

임신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2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제 7건

인사평가(유학 대상, 승진)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음

임신과 출산(육아) 대체인력 수급절차

- ① 기존 휴직자 복귀 시점 조율하여 대체
- ② 대체 불가시 신규채용
(정규직 또는 휴직자 복귀 시점까지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검토)
- ③ 휴직 중인 직원 업무 대체 직원 지원
(장기 부재 직원 업무 팀원 분담, 추가 수당 지급)

변호사 4년 차, 직원 10년 차에 안식 휴가 제공(변호사 8건)

가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기부, 자원봉사, 공익소송의 수행·지원, 무료법률상담,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 예비 공익변호사 양성·지원,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 연구, 공익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입법지원

총 공익활동 7,778.63시간

상세내용은 공익활동지표 참조(48~49쪽)

법조인 양성

01 수습변호사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시행

두루 공익 실무수습 프로그램 지원

02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과목 교육 지원

소속 변호사들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실무과목 강사로 활동

적절한 사건 수임

01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수임 배제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 배제(윤리헌장 3조)

02 과도한 사건 수임 자제

탈법적 방법의 수임금지

과도한 수임 경쟁 지양

※ 위 표의 항목은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통계와 활동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

01 탄소배출 감소 활동, 재활용품 사용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 종고책방 등
자원순환 운동 전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 지양,
일회용 컵홀더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컵홀더 제작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품 사용 권장

02 환경 관련 NGO 지원

환경 공익소송 수행(송전선로 피해보상 관련 헌법소송 진행 중)

환경 관련 NGO 지원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

01 구성원 현황 등에 대한 로펌 정보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성원 현황 및 조직 변동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의한 정보공개

02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로펌 최초로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2014~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서 발간,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입법지원, 제도개선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공정무역 제품 구매

소셜벤처와 소속변호사를 1:1로 연결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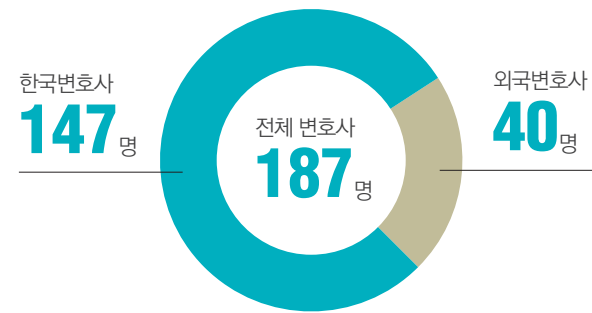
거래 : 닥터브로너스, 마리몬드, 베어베터, 소녀방앗간 등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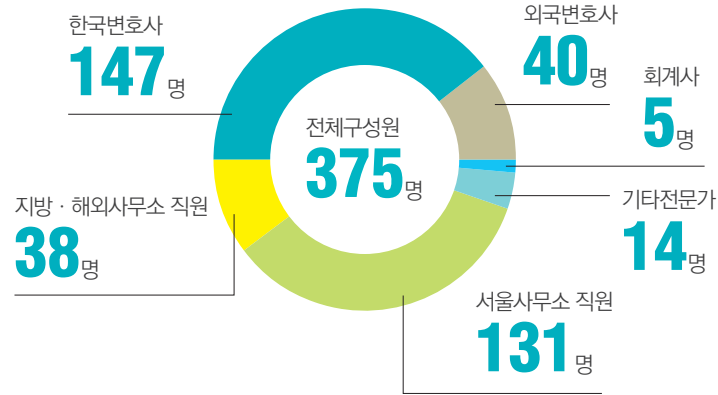
구성원의 다양성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로펌,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지향하는 지평은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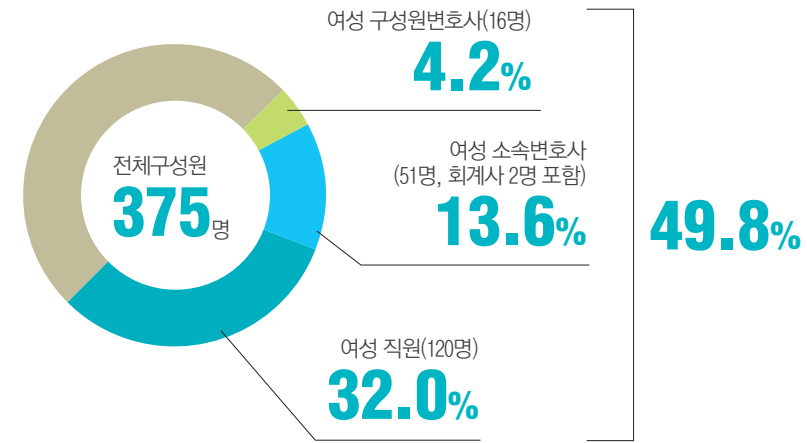
전체변호사 수



전체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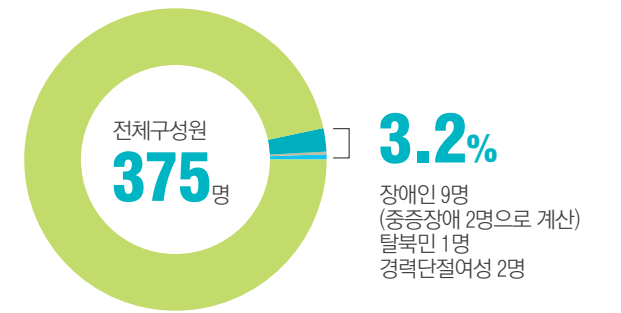


전체구성원 중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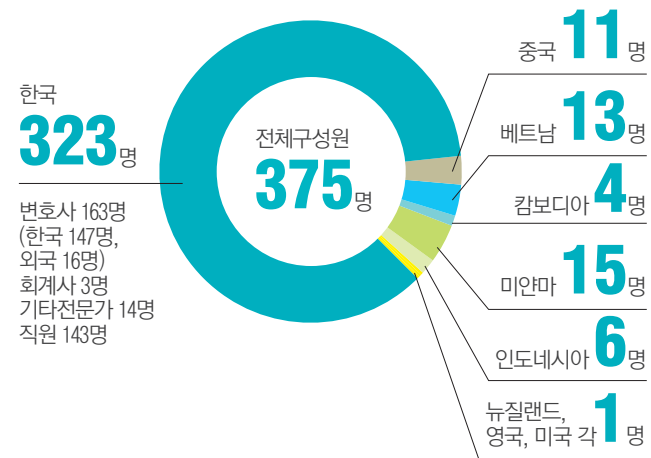
*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35.8%(67명 / 187명)

전체구성원 중 소수자 비율
장애인, 탈북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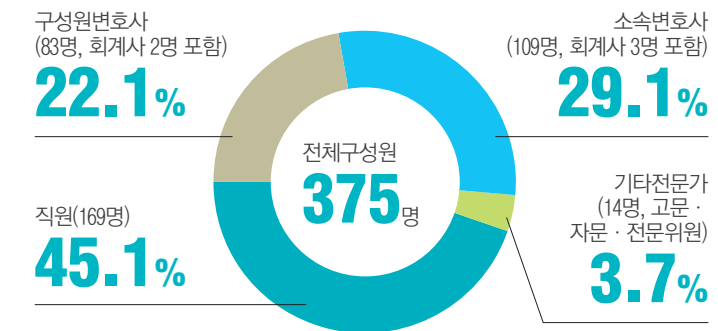
* 본사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로 민간 사업주 의무 고용률인 2.9%를 초과

전체구성원 국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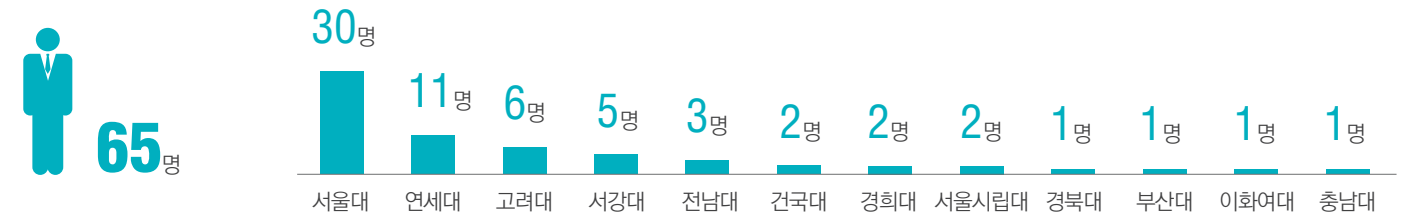
변호사 163명 (한국 147명, 외국 16명)
회계사 3명
기타전문가 14명
직원 143명

전체구성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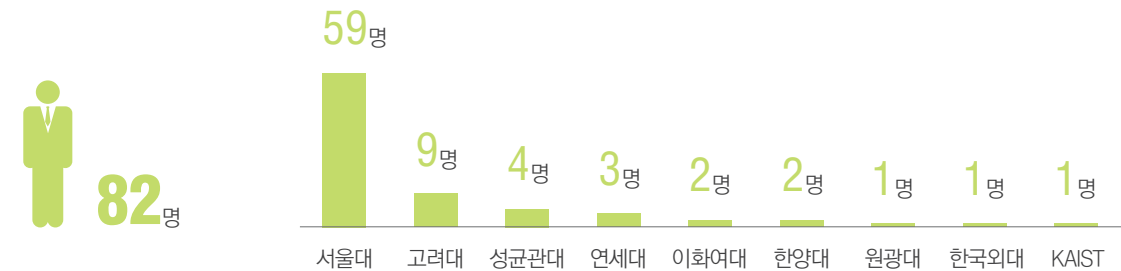


* 12. 31. 기준 지평 전체구성원 375명 / 서울사무소 직원 131명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2018년 한국변호사(147명 기준)



학부(사법시험)별 변호사 구성
2018년 한국변호사(147명 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은 12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2018년도에는 「장애인고용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소속 강사 네 분(김탄진, 배승천, 오지우, 최현진)이 진행하면서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과 편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외에도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권소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고백하는 미투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평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적 언동 또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2018년 9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조언, 관련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안의 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평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지평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단절 전 경력에 맞는 포지션에 따라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고 싶으나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어 퇴사를 하게 된 비서 직원들에게는 채용 건이 있을 때 연락을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고, 2018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여 범위를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03

소수자 차별금지

04

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HR위원회는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품 변호사
HR위원회

로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지평은 예비구성원 변호사가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은 함께 성장해나갈 좋은 동업자를 찾고, 지평도 예비구성원 변호사의 좋은 동업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사진도 제출 받지 않습니다. 신입변호사는 인턴과제 평가, 생활지도 평가, 경영위원회의 최종 면접 및 결정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 학부전공, 법학전문대학원,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두루 선발함으로써,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지평 HR위원회는 인재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지평의 '사람 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지평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88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무수습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은 절반 이하로 서울대 편중현상이 예년보다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실무수습	1차 2018. 1. 8. ~ 1. 19.	1학년 (9기)	20명	서울대 8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국외대 각 2명, 건국대/경북대/인하대/한양대 각 1명
	2차 2018. 1. 22. ~ 2. 2.		25명	서울대 11명, 성균관대 3명, 고려대/서강대/연세대 각 2명, 경희대/아주대/부산대/이화여대/한양대 각 1명
하계 실무수습	1차 2018. 6. 25. ~ 7. 6.	2학년 (9기)	13명	서울대 7명, 연세대 2명,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 각 1명
	2차 2018. 7. 9. ~ 7. 20.		30명	서울대 15명,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각 2명, 건국대/경북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중앙대 각 1명

05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통상적으로 배우자는 출산 후 30일 내 유급휴가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출산휴가로 부여받고 있으나, 지평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취지로 출산 시 배우자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후 60일 내에 10일의 유급휴가(불연속)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에 앞서 지평은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지평 구성원과 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0만 원(매월 10만 원씩 10개월 분할 지급)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면서 육아부담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에는 1년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지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여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2017년 3월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제도는 장기근속한 구성원에게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프로의 경우 3년을 근무한 예비구성원(2주일), 직원의 경우 10년 차(2주일), 20년차(1주일)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안식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프로 및 직원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년을 근무한 예비구성원의 경우 75% 정도 안식휴가 사용을 하였고, 특별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성준 변호사

입사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둘째가 태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아 휴가 사용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아무 불편 없이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첫째를 챙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수업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열흘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첫째 아이와 더 나아가 가족을 돌보는 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된다면, 다자녀 가정에는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장소라 변호사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배려 덕분에 안식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일상에서 벗어나 그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 입사할 때의 초심을 잃어갈 때쯤 회사 밖에서 내가 있던 자리, 내 주변 사람들, 일의 의미 등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많은 후배님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회사로 돌아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 조직 및 활동

지평은 2015년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변호사 6명, 직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전기절약, 종이컵 줄이기, 이면지 사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사내에서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기절약 순찰대를 조직하여 각 층마다 늦은 밤 중이나 주말에 불이 켜진 곳이 없는지 점검하였고, 2017년에는 '모두의 책꽂이'란 이름의 중고책방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커피컵 홀더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차 없는 날' 공지 및 자전거 타기 행사 진행

매년 9월 22일은 '차 없는 날'입니다. 대중교통,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날입니다. 지평은 차 없는 날이 마침 토요일인 관계로 한강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는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차 없는 날 이외에도 환경 관련 기념일이 있는 날마다 지평 구성원들에게 기념일의 취지를 공유하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커피컵 홀더 만들기 행사 진행

지평과 두루는 올 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커피컵 홀더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커피숍에서는 매년 일회용 커피컵 홀더를 제공받습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피컵 홀더는 한번 사용 후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환경실천소모임에서 뜨개질로 홀더를 만들어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참석했던 50여 명의 구성원들이 뜨개질로 만든 홀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6

탄소배출 감소 및 재활용품 사용